

구혜선이 그리는 사랑과 파괴 “애착가진 우리 모두의 자화상”

두번째 개인전 ‘미스터리 핑크’
전시회 통해 단편영화 공개
“즐겁고 가볍게 감상하셨으면”



구혜선



구혜선 '미스터리 핑크' /파트너즈파크

배우, 영화감독, 소설가, 화가 등 다양한 예술 장르 안에서 기량을 펼치고 있는 구혜선이 두 번째 개인전 '미스터리 핑크-MYSTERY PINK'로 관객과 만난다. 배우가 아닌 창작자로서의 예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다크 옐로우-DA RK YELLOW'에 이은 두 번째 컬러 프로젝트 기획전이다. '사랑: 파괴적인 미스터리함. 그것은 당신의 자화상'이라는 부제 아래 사랑하는 이들의 일방적이고 관찰자적인 시점을 시간과 공간을 통해 담아낸 단편 영화와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을 담았다.

10일 오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는 구혜선이 참석한 가운데 '미스터리 핑크-MYSTERY PINK' 미디어아트가 열렸다.

“지난해 개인전 '다크 옐로우'를 열고 이번에 '미스터리 핑크'라는 두 번째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영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영화가 상용되는 공간이 많지 않고, 전시회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건강 악화에 시달렸던 구혜선은 걱정과 달리 밝은 미소로 등장했다.

영화제 출품을 통해 단편영화를 공개해도 되지만, 굳이 전시라는 매개를 통해 단편작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지난번 전시회장을 찾아주셨던 분들이 즐겁고, 가볍게 작품을 감상하셨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번에도 무료 전시회를 추진하게 됐다. 영화라는 것이 '평가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

신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번 컬러 프로젝트 전시의 주제이자 단편영화인 '미스터리 핑크'가 공개됐다. 10여분 남짓의 영화에는 서현진과 양동근이 주인공으로 분해 스토리를 끌고 간다.

구혜선은 “평소 굉장히 신뢰하는 배우 서현진 씨와 존경하던 배우 양동근 씨와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미스터리 핑크'는 사랑하기 때문에 파괴하고 싶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파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혜선의 '미스터리 핑크-MYSTERY PINK'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원천서 기자 tree6834@



루지 국가대표 김동현이 지난 2014년 2월 4일 소치 올림픽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

/뉴스

육감과 반사신경으로 달린다 140km 쾌속 질주의 '짜릿함'

<평균>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5 루지

썰매라는 뜻의 프랑스어 '루지' 봅슬레이는 앉고, 루지는 누워서

제동장치 없이 헬멧·고글만 착용 1000분의1초 차이로 승부 결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열리는 썰매 3개 종목은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은 꽤 익숙한 종목이 됐지만, 루지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

봅슬레이는 앉아서,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타는 썰매 종목이라면 루지는 누워서 타는 썰매다.

썰매라는 뜻의 프랑스어인 '루지(Luge)'는 쾌속 질주가 특징이다. 루지 선수들이 팬텀으로 느끼는 레이스 속도는 평균 140km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의 마누엘 피스터는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 앞서 캐나다 휘슬러 트랙에서 열린 대회에서 역대 최고인 시속 154km를 찍은 바 있다.

봅슬레이와 달리 루지와 스켈레톤에는 제동장치와 보호장구가 없다. 내리막 빙판을 내려오면서 훈련으로 체득한 육감, 반사신경만으로 썰매를 조종해야 한다.

지난 1964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 루지에는 남녀 싱글(1인승), 더블(2인승·남녀 구분 없음), 팀 릴레이 등 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팀 릴레이는 4년 전 소치 대회에서 도입됐다.

싱글은 이틀간 4번 주행한 기록을 합

루지
소셜 썰매에 누워 트랙을 질주하는 경사로 1964년 인스브루크대회부터 정식종목 채택
싱글은 이틀 동안 4번 주행한 기록을 합산하여 2인승은 하루에 2번, 팀 릴레이는 하루에 1번 주행한 기록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

루지
너비: 55.1cm

세부종목
남·여 싱글, 미혼·혼인자 구분 없음

장갑
손가락 끝 또는 마디에 4mm 길이의 스파이크 장착

경기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8. 2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앞날 경기 (예전 6) ● 해당 경기전

분으로 이뤄진다.

썰매의 중량은 1인승 최대 25kg, 2인승 최대 30kg다.

선수들은 스타트 라인에서 썰매에 앉아 출발선 양쪽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는다. 이를 앞으로 밀고 당기면서 탄력을 만들어 출발하는 형식이다.

출발과 동시에 손가락 끝 또는 마디에 약 4mm 길이의 스파이크가 장착된 양손 장갑을 활용해 트랙 얼음 바닥을 뒤로 밀어내며 추진력을 높이고, 일정 속도에 오르면 썰매에 누워 본격적인 레이스를 치른다.

특별한 보호장구가 없는 만큼 머리와 눈을 보호하는 헬멧, 고글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선수들은 트랙 밖으로 썰매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좌우의 벽 높이 50cm 이상으로 설계된 트랙에서 13~16개 커브를 지난다.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의 규격은 트랙 길이 1201~1344m, 출발점과 결승점의 표고 차 95~117m, 평균 경사도는 8.97%~9.69%다. 커브는 16개 구간으로 이뤄졌다.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직선 같으면서 곡선 같은 커브가 몇 개 숨어 있고, 코스 난도는 세계 여타의 것과 비교해 중상 수준이다.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9번째 커브와 중력 가속도의 5배에 달하는 압력을 받아 속도가 최고로 상승하는 12번째 커브가 난코스 평가받는다.

트랙 길이와 표고 차 등이 다른 이유는 남녀 싱글 종목 선수들이 좀 더 높은 곳에서 출발해 더 긴 트랙에서 주행하기 때문이다. 여자 선수들과 더블 선수들의 트랙 규격은 같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



뉴스스탠드 'MY뉴스' 구독 설정 방법

- 1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스탠드 > 전체인문사 리스트보기(=) 클릭 > '종합/경제'에서 화살표를 눌러 '메트로' 찾아 구독 버튼 클릭!
- 2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스탠드 클릭 > 상단 '설정' 클릭 > '종합/경제' 클릭 > '메트로' 선택 후 '선택완료' 버튼 누르면 끝!
- 3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스탠드 클릭 > 상단 '설정' 클릭 > '종합/경제' 클릭 > '메트로' 선택 후 '선택완료' 버튼 누르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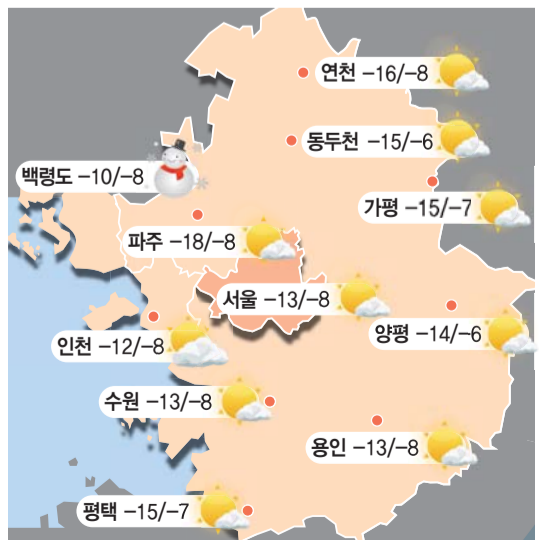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33

1월 11일
음력 : 11월 25일

수도권 날씨
-13 ~ -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와 은행권 특별기획세트가 예약 접수에 들어간다. 특별기획세트는 평창올림픽을 기념해 발행된 모든 기념주화 21종(금화 4종·은화 15종·황동화 2종)과 기념은행권(날장형·연결형·전지형)을 포함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따른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지난해 브라질 바이아에서 임대했던 브라질 23세 이하(U-23) 대표 출신 호몰로(23)를 완전히 영입했다.

▲ 프로축구 FC서울의 베테랑 공격수 박주영(33)이 원소속팀 서울과 재계약했다. 박주영은 2020년 말까지 서울에서 뛰는다

▲ NC 다이노스가 2017시즌 함께 했던 외국인 타자 재비어 스크릭스(31)와 계약금 4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등 총 13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마쳤다.

▲ 중국 반도핑위원회가 '여자 마라톤 왕자리(32)의 B샘플에서도 에리스로포이에틴(EPO,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 성분이 검출됐다'며 "8년 동안 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벌금 4만 위안(약 655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왕자리의 코치 루치앙은 자격 평생 박탈과 벌금 8만 위안(131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12일 경기도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신인 선수 부모님 초청 행사를 한다.